

# 유교문화와 기독교상담의 문화적 접근

한 재 희 교수  
(Ph.D., 천안대학교)

## 국문초록

모든 전문적인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두 인격의 만남을 매개로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만남의 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는 자신의 내면 안에 일생동안 배워온 일정한 형태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이나 태도, 가치관 등을 내장하고 있다. 오늘날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론이 서구의 문화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해서 발달되었기에 우리나라의 문화에 적합한 상담의 틀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유교사상은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틀을 형성하는 지대한 역사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교는 종교성에 대한 논란의 여부를 떠나 그 사상자체가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이념, 가치, 정서, 사회관습, 규범, 교육제도, 가치관 등에 속속들이 스며져 있다. 특히 한국의 문화적 현상에서 파생된 가부장제도, 서열의식, 여성차별, 가족주의,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주의, 비정상적인 교육열풍, 체면의식 등은 유교적 가치관과 그 영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의 기반이 되는 유교와 유교로 말미암은 사회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유교적 특성에 적합한 기독교상담적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중심단어** : 다문화상담, 유교, 기독교상담, 한국문화, 문화심리

## I. 여는 글

모든 전문적인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두 인격의 만남을 매개로해서 이

루어진다. 이러한 만남의 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는 자신의 내면 안에 일생동안 배워온 일정한 형태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이나 태도, 가치관 등을 내장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만날 때 크든 작든 문화적인 차이를 겪게 된다. 만일 상담자가 이러한 차이를 자각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친밀한 상담관계는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상담관계에서 여러 가지의 긴장과 갈등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교와 외래문화를 수용하면서 나름대로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여러 가지 문화적 특성 가운데 한국인의 가치관과 정신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샤머니즘이라 할 수 있고 관습 및 제도적 가치관에서는 유교라 할 수 있다. 특히 유교는

한국사회의 기반에 자리 잡은 가장 오래되고 뿌리 깊은 전통으로서 한국인의 다양한 삶의 양식과 문화 형식 속에 배어있다. 현대의 삶 속에서도 유교문화는 가치관, 인간관, 세계관 등에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면과 관계양식에 작용하고 있다. 유교문화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적 가치관이 기독교, 불교 등 서로 다르더라도 그 심층을 살펴보면 개인의 가치관, 사유방식, 생활양상은 유교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종교는 유교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론이 서구의 문화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해서 발달되었기에

우리나라의 문화에 적합한 상담의 틀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의 기반이 되는 유교와 유교로 말미암은 사회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유교적 특성에 적합한 기독교상담적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II. 펴는 글

### 1. 한국의 유교문화와 사회심리적 특성

한국인의 삶 속 깊이 스며 있는 세계관은 수천 년 전 농경사회를 이루며 살아오던 시기부터 형성되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역사의 초기부터 농경사회가 보편적으로 고유하고 있는 종교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국문화의 근저엔 초기 농경사회로부터 기원된 씨족사회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 그리고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등의 종교적 심성이 뿌리깊이 내려져 있다.

이러한 종교적 심성과 함께 유교사상은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틀을 형성하는 지대한 역사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교는 종교성에 대한 논란의 여부를 떠나 그 사상자체가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이념, 가치, 정서, 사회관습, 규범, 교육제도, 가치관 등에 속속들이 스며져 있다. 즉 한국인들은 종교의 차이에 상관없이 일반사회 생활의 영역에서는 유교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적 현상에서 파생된 가부장제도, 서열의식, 여성차별, 가족주의,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주의, 비정상적인 교육열풍, 체면의식 등은 유교적 가치관과 그 영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1) 유교문화의 핵심사상

유교는 공자(孔子 B.C 551-479)에 의한 사상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밝히고 인간본래의 의미를 찾아서 한 사회나 국가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계를 건설하는 이념을 담고 있다. 따라서 유교는 종교적 교리나 신의 존재, 사후 문제의 영원성 등에 대한 관념은 희박하지만 인(仁)과 도덕, 예절, 삶의 윤리 등에 대한 인간상호관계적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유교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사회 통치의 원리와 가치관의 기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조선왕조가 유교이념을 국가의 통치원리로 정립하여 이론적인 체계를 갖춘 이후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기

반과 대중의식 속에 뿌리 깊이 파고들어 우리나라의 정신사에 있어서 독자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가족과 사회 속의 삶의 방식을 통한 인간관계의 질서 등에 대한 전통윤리의 근간이 되는 유교의 핵심적 사상을 살펴보면 도덕적 토대로서 인(仁)과 의(義)를, 그리고 실천적 도덕규범으로서 효(孝), 충(忠), 예(禮)를 들 수 있다.

#### (1) 인(仁)과 의(義)

기독교와 불교의 핵심적 개념을 각각 사랑과 자비라고 한다면 유교의 핵심적 개념은 인(仁)이라 할 수 있다. 유교에 있어서 인은 공자 사상의 기본이며 또한 윤리 도덕의 이상적 목표라 할 수 있다.<sup>1)</sup> 따라서 인은 유교가 주장하는 수많은 덕목의 완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통해 스스로를 닦으면서 그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인은 처음에는 부모와 자녀간의 애정 혹은 온화함을 뜻했으나 더 나아가서 인의 개념은 사람다운 길을 걷는 인간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덕의 절정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인간 서로가 사랑하고 친밀하게 결합된다고 보았다.<sup>2)</sup> 따라서 유교에서 인의 실천적 시작으로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효(孝)를 강조하고 있다. 인은 이렇게 효로 시작해서 결국 모든 사람을 향한 덕과 사랑을 향한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의 근본주제처럼 인은 자기 가족에게서 이웃으로, 이웃에게서 모르는 사람에게로, 결국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모든 이가 그 안에서 편안한 대동(大同)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sup>

의(義)는 유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도덕적인 힘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행해야 할 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바를 가리킨다. 서양에서 말하는 정의(正義)에 해당되는 개념으로서 인이 전체 덕목을 총괄하는 전인적인 덕목이라면 의는 어떤 일정한 상황에서 인을 기준으로 삼아서 도덕적으로 취해야 할 바를 정해주는 인의 하위 덕목이라 할 수 있다.<sup>4)</sup>

#### (2) 효(孝), 충(忠), 예(禮)

유교에서는 인과 의를 삶 속에서 이루어 가는 실천적 도덕규범으로서의 중요한 덕목을 효와 충, 그리고 예를 들고 있다. 따라서 유교의 효와 충, 그

리고 예의 덕목은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질서와 규범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효는 부모에 대하여 자녀가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윗사람의 의무보다 아랫사람의 의무를 강조하는 상향식 사랑을 말한다.<sup>5)</sup> 이러한 상향식 사랑은 단순히 물질적인 봉양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경심을 기본적으로 품어야 함을 의미한다. 효는 인간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기본적 도리로서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며 백행(百行)의 근원으로 보았다. 따라서 효경(孝經)에 보면 효는 '모든 덕의 근본이 된다'고 하여 변하지 않는 규범적 척도로 삼았다.

또한 유교에서는 효에 대한 사상을 종교화하여 사후(死後)에 대한 것까지 도덕적 규범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사후의 효를 위한 수단으로 자손들에 의한 조상의 제사를 강조하며 그 제사를 위하여 자손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함을 후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즉 제사를 거행하는 주체로서 남자 아이를 낳는 것이 효의 중요한 실천 사항으로 강조하였다.

한편 충이란 유교의 중요한 도덕규범으로서 국가, 왕, 주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하여 정성을 다한다는 뜻과 함께 다수의 사람 전체에 대하여 공평하게 성실을 다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즉 조금의 허식이나 거짓없이 자기의 온 정성을 기울인다는 것으로서 이는 모든 인간 행위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또한 충은 단순히 위를 향한 일방적인 정성이라는 뜻과 함께 자신을 향한 정성도 포함된다. 따라서 충의 대상은 자신에서 시작하여 가정은 중간이요 국가가 종착지라 하여 국가가 가장 크고 마지막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sup>6)</sup>

예는 유교문화의 전통에서 볼 때 인간의 도덕성에 근거한 사회적 질서의 규범으로서 내용보다는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방법적 차원을 말한다. 따라서 예는 인간행동의 표준적 절차를 제공하는 동시에 인간 삶의 중대한 일 즉 관(冠), 혼(婚), 상(喪), 제(祭)에서부터 이웃과의 일상적 교제에 이르기까지 음식, 의복, 태도와 동작을 규정하는 유교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핵심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유교의 역사에서 보면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형화시키는 규범은 시대적으로 일찍 생겨난 것임을 알수있는데 대표적으로 삼강오륜을 들 수 있다. 삼강오륜은 한국의 역사에서 유교 교리 가운데 사람들의 심

성과 사회생활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7)</sup>

## 2) 유교문화의 사회심리적 특징

한국의 유교문화적 특성에 따른 한국인의 사회적 행동이나 의식 속에 내면화된 사회심리 및 정서체계를 살펴보면 체면, 눈치, 한, 정, 우리주의(Wenness), 수치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유교문화 속에 배여 있는 이러한 문화심리적인 특징과 정서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작업은 한국적 상담을 위한 상담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1) 체면

체면이라는 단어를 문자적 의미대로 풀이하면 “몸의 바깥 면”을 뜻하지만 이는 인간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의 내면 또는 자기와 관계된 사실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나 외적인 명분을 높이려는 행동의 과정과 관련된 ‘사회적 안면’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체면이라는 말은 자신의 내면과 행동의 일치성에 있어서의 명예와는 다른 의미로 활용된다. 즉 체면이라는 말에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명분을 과시하기 위해 행동하는 상황에 따른 표리부동의 ‘치레’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한국 문화의 관계적 특징 중 하나인 체면은 단순한 행동적 특징이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하는 요인이다. 어느 사회의 문화적 특징은 비록 사회적 구조와 생활양식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쉽게 바뀌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교적 집합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보다도 자기의 내면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항상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염두를 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마음과 표면적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다.

좀 더 깊이 있게 체면에 관한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적 가치관과 구조 속에서 형성된 가족주의에 기초한 집단주의 의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적 관계의 틀을 형성하고 조선 시대의 유교는 효의 가르침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유교의 가장 기본

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는 ‘오륜(五倫)’도 “부자유친”이라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다섯 항목 중 세 항목이 가족관계에 관한 원리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주의가 원형이 된 집합주의에서 개인은 ‘우리’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며 명분을 중시하는 형식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 조선시대 양반의 생활태도에 대한 규범은 이러한 형식주의에 대한 단적인 예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외면적 체통에 대한 위반은 자기 자신만이 아닌 자신의 가문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수치심과 손상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었기에 비록 형식과 가식이라 할지라도 사회 속에서 용인되는 명분과 규범을 생명처럼 지켜야만 했다.

조선시대의 유교적 가치관은 집합주의 문화적 특성만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강한 회피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쉽게 표현하면, 한국인의 문화적 정서 속에는 자신의 집단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회피하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그 저변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사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정서가 깔려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등과 같이 엄격한 윤리와 구별, 서열 등을 정해놓고 관계적 틀을 형성하며 각각의 신분에 맞는 행동양식과 규범을 설정하고 있다. 개인의 형편에 따른 융통성은 최소화되며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기란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문화적 특징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 틀을 유지해야 체면이 손상당하지 않는다는 잠재적 의식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 (2) 눈치

눈치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눈(目)’을 가리키는 순수한 우리말인 ‘눈’과 측량이나 값을 나타내는 ‘치(值)’라는 한자어가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로서 눈에 의한 측량 즉 어림잡은 측량이란 뜻이다. 사람관계에서 통용되는 문화심리적인 특성으로서의 눈치는 상대방의 마음 즉 정확한 마음의 측량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가 자신의 의중이나 내적상태를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을 때 간접적인 단서나 상황으로 미루어 상대방의 마음을 짐작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눈치는 위계적인 가족과 사회에서 종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생성된 개념이며 외부적 암시들을 알아차리는 것을 배우는 수단이

라 할 수 있다.<sup>8)</sup>

눈치문화의 형성배경은 무엇보다도 유교적 가치관의 의사소통에서 찾을 수 있다. 유교에서는 인(仁)의 실천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했으며 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세우지 말아야 하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유교적 사상에 영향을 받은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말로 풀어 전달하기를 꺼려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언어적 표현 보다는 비언어적 수단과 주변 정황에 의존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습관을 갖게 했다. 이처럼 한국문화에서는 진심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만으로는 제대로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인은 말 이외에도 상황과 맥락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진의를 찾아내는 기술이 필요했고 눈치는 이러한 문화적 양식에서 발달된 태도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 (3) 수치심

수치심의 현상학을 다루고 있는 Nicol은 수치심을 감정으로서의 수치, 태도로서의 수치, 그리고 불안으로서의 수치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sup>9)</sup> 따라서 수치심은 굴욕에 대한 노출의 절박한 위험이 자아내는 불안의 형태로써 생물학적인 반응과 혼란 상태가 비열하고 가치 없는 것이 원인이라는 인지적 태도를 더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심은 자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항상 비윤리적 행위의 반작용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수치심은 자신의 내부 주관적 감정이지만 자기 안에 내면화시킨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것으로서 자신의 전 존재 혹은 자기(self)가 타인들이나 자기 자신에 의해서 가치 있게 여겨를 받는 태도로부터 생겨난다. 이에 반해 죄책감은 수치심과 비슷한 감정이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행동이 자신의 내재화된 양식에 따른 도덕적 기준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감정으로 볼 수 있다.<sup>10)</sup>

한국의 문화심리적인 안목에서 보면 죄책감 보다는 수치심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한국문화가 유교적 집합주의 성향으로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개인규범 보다는 타자와의 역할기대와 관련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규범위반에서 파생되는 죄



책감이 개인주의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서구문화와 좀 더 깊은 관련이 있는 반면 타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수치심은 집합주의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문화와 보다 더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4) 우리주의(We-ness)

한국어의 '우리'는 '나'라는 개체의식 없이 한데 어울려 있는, 한 묶음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낱말이다. 여러 명이 독자적인 '나'가 아니라 하나의 일체화된 '나'가 '우리'다. 그래서 '나'를 쓸 자리에 '우리'란 말을 써도 이상하지가 않은 것이다. '우리 식구'라고 말할 때에도 울 안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의 존재공간 속에 통합되어 있는 사람으로서의 가족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식구'라고 말할 때에는 작계가족만을 뜻하지 않고 동료나 공동운명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한다.<sup>11)</sup>

전통적인 유교적 영향 속에서 사회적 관계의 기본 축은 개인이 아닌 '우리주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인의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개인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타인과의 하나 되는 관계를 지향하는 '관계성 개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인간관계는 '우리주의'라는 관계의 틀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주의는 '우리'와 '우리가 아닌 남'을 대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마음의 틀을 통해 상대를 어떤 관계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대비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최준식은 이러한 '우리'와 '우리가 아닌 남'을 '내집단'과 '외집단'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며 두 집단 사이엔 서로의 배타적인 문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12)</sup> 외집단에 대한 불친절, 학연이나 혈연, 또는 지연에 따른 인사관행, 지역당 현상의 정치상황, 지역 및 연고주의 등은 이러한 문화적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집단과 외집단은 항상 고착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 국민이 우리가 되는 내집단의 의식 속에서 행동하며 또 다른 경우에는 내집단이 매우 축소된 범위로 좁아지기도 한다.

이러한 '우리주의' 개념은 개인이 우리라는 집단 속에서 자타간의 경계성이 약화되는 '탈 자기적 우리주의'로서 한국민족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차적이고도 중요한 목적은 '우리'라는 집단을 형성하고 확인하며 유지하는 일

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독립된 개인으로서는 사회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불완전 부분자라는 개인관과 인간관이 서구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sup>13)</sup>

#### (5) 정(情)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 중 정(情)은 대인관계에서 가까움과 밀착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한국문화의 정서체계적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정(情)이라는 개념은 서구문화의 사랑(love)이나 애정(affection)과 유사하지만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의 속성과 같은 감정상태이기 보다는 장기간의 접촉과정에서 의식되지 않게 쌓여져서 느껴지는 누적된 감정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情)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지속시간도 사랑이 갖는 감정 보다 더욱 길게 된다.

한국인의 정(情)은 '우리' 라는 개념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한국의 가족관계적 특성의 유교적 영향 속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정(情)은 한국의 가족문화에서는 개인보다 가족공동체가 강조되었고 가족 구성원 간에는 끊임없는 동질성과 하나됨, 상호의존, 상호수용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상호관계와 교류패턴이 추구되어져 왔다. 이와 같은 가족 내 인간관계의 형태가 사회관계로 확대된 것이 한국문화적인 인간관계이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情)이라는 정서가 나타나게 되었다.<sup>14)</sup>

또한 정(情)을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호 간에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기 쉬운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정(情)은 한국인의 사회적 심성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현상이며 개념이다. 유교적 영향 하에서 강한 집합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의 문화는 개체의 독립성과 특이성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성을 중시하며 정(情)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과업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인간관계가 아닌 인간 대 인간의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본질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6) 한(恨)

한(恨)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파생된 남녀차별적인 가부장제도 또는 권위적 서열의식 등으로 인해 한국인의 대중적 의식 속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

고 있는 심층적인 특질이자 민족적 정서라고 할 수 있다. 한(恨)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마음을 뜻하는 '심(心)'과 가만히 멎어있다는 뜻인 '간(艮)'으로 이루어진 문자로서 마음에 풀리지 않은 응어리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한(恨)은 마음속의 상처를 가만히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 외부로 마음속의 충격을 반사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수용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恨)은 그 발생당시에는 분노, 원망, 증오, 적개심 등과 같은 외부지향적인 부정적 감정과 더불어 자기불행의 원인을 외부적으로 귀인시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함과 더불어 심리적 재조정과정을 통해 점차로 자책적 귀인 및 초월적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한(恨)과 깊은 연관이 있는 한국적 문화관련증후군으로서 화병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발산시키지 못하고 누적된 화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리키는 병명이다. 한(恨)의 신체적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힘없음, 피곤, 답답함, 저림, 기능장애, 불면증, 가슴 속 덩어리, 한숨, 치밀어 오름, 화끈 달아오름 등으로 나타나며, 한(恨)의 정신적 증상으로는 우울, 불안, 파괴적 충동, 공포, 건망증, 예민성, 피해의식, 죄의식, 수치, 강박증 등으로 나타난다.

민족적 정서체계로서의 한(恨)에 대한 뿌리를 살펴보면 유교적 전통에 따른 가부장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집합주의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고통을 외부로 표출하기 보다는 자신의 내면으로 소화해야 하고 겸손과 자기주장을 드러내지 않는 불평등 수용과 여성성의 문화적 특성이 결합되어진 문화적 정서체계라 할 수 있다.

## 2. 기독교상담의 문화적 적용

### 1) 성경과 다문화기독교상담

성경은 분명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와 문화적 상황을 초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구원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주고 있다. 즉 성경은 모든 문화와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의사

소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매(요한복음 1장 14절)”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발견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로서 예수님은 무기력한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셨으며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고 태어나신 것이 아닌 학습자(Learner)이셨다는 사실이다.<sup>15)</sup> 본질이 하나님인 예수님(빌 2:6-7)이 학습자의 신분으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30년 동안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의 언어와 생활방식, 그리고 문화를 배운 것은 기독교상담자를 포함한 기독교적인 돌봄을 주는 자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다문화기독교상담의 진정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상담은 목회자 또는 기독교상담자가 대화라는 매체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담자의 심리적 고통이나 정서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돌봄이라는 차원에서 기독교상담의 강조점을 역사적 맥락에서 정리한 Patton은 돌봄의 사역을 고전적 패러다임, 임상목회적 패러다임, 상황적 패러다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전적 패러다임에서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일반화하여 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려는 경향을 가졌으며 기독교 신학과 전통에서의 돌봄의 요소인 선포적 메시지에 그 강조점을 두었다. 임상목회적 패러다임은 돌봄을 주고받는데 관련된 사람을 강조하는 경향을 띄며 인간의 문제를 심리학적 또는 정신병리학적인 해석을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오늘날 목회적 돌봄은 상황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삶이나 목회적 현상과 관련된 상황(context)를 이해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상황은 문화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목회신학자인 David Augsburg는 인간에 관한 세 가지 차원 즉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보편적 차원, 다른 사람 또는 집단이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문화적 차원, 각 개인에게 있어서의 독특한 개별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특히 문화적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한 가지 문화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

으며 다른 사람의 문화를 인식할 때 비로소 실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상담자는 문화적 인식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Augsburgers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다.<sup>16)</sup>

- ①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과 다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설과 가치관에 대한 명확한 이해
- ② 자신의 특성을 고수하면서도 다른 세계관을 환영하고 이해해 보고 칭찬할 수 있는 능력
- ③ 개인과 상황에 영향을 주는 자료들과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인 힘의 영향에 대한 인식
- ④ 특정한 심리적 이론에 대한 순응의 강요가 아닌 특정한 사람의 삶의 상황에 융통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 ⑤ 차이점과 유사점, 그리고 특성과 공통성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차이점과 관련이 있음에 대한 인식
- ⑥ 잘못된 가설과 편견 그리고 정보를 발견하고 버릴 수 있는 자세
- ⑦ 다른 사람들의 역사적 전통에 대한 가치를 탐구하고 자신의 전통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자세
- ⑧ 이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의미와 실체의 새로운 영역을 발견할 것에 대한 기대

## 2) 다문화상담의 특징과 한국적 적용

오늘날 다문화상담은 상담 안에서 '제 4의 세력' 또는 "제 4 영역"으로 묘사되고 있다.<sup>17)</sup> 물론 상담에 있어서의 이러한 다문화적인 접근은 대체적으로 기존의 상담이론을 배격하거나 새로운 상담이론의 모델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다문화상담학자들은 다문화상담의 이론을 정리하고 제안하는 있어서 상담의 전형적인 역할 안에서의 주요변화를 다음과 같은 기본적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상담을 통한 조력관계(helping relationship)에 있어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상담자의 시각을 넓히는 일, 둘째, 상담에 있어서 가능한 한 문화적으로 적합하도록 조력반응(helping response)을 위한 상담기법을 포함한 레퍼토리를 넓히는 일, 셋째, 내담자가 속한 문

화적인 환경에서 전통적으로 상담역할을 수행하였던 전문가들과의 상호연계를 통한 서구적 상담 틀에 대한 대안의 개발에 관한 일이다.

유럽과 미국의 문화로부터 생겨난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들은 서구 문화의 가치와 도덕, 관습, 언어, 철학 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비서구적 문화에 있어서 상담자에게는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에 따라 상담유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효과적인 상담의 진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적 차이 또는 문화적 거리가 최소화되어야 하며 또한 문화적인 맥락에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상담을 주창하는 학자들은 동일한 상담기법과 전략을 인종, 민족,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시켜 온 지금까지의 상담 방법과 그러한 경향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다문화상담이란 상담자와 내담자가 문화적 배경, 가치관, 그리고 생활양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담의 이론과 적용기법에 있어서 유연성을 인정하며 적용하는 상담이라 할 수 있다.<sup>18)</sup>

한편 상담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문제가 1973년 APA Vail conference에서 제기된 이후 미국을 비롯한 몇 나라에서는 상담분야에서 다문화 상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적으로 다른 그룹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행해지는 상담은 비윤리적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논의들이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에서 문화차이가 단지 언어와 풍습에 따른 인종이나 민족적 차이에서만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 내에 다양한 그룹의 문화적 차이와 개인적 특성이 나타나기에 문화적 차이에 따른 상담적 접근의 고찰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즉 상담은 문화적 역동성을 이해하며 진행되어야 하고, 모든 상담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문화적이라는 사실, 내담자에 대한 문화적 차원의 배경, 가치관, 가족제도와 체계와 역사를 알지 못하면 상담의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담학계에서 대두되는 현상이다.

이상과 같은 다문화상담의 이론적 기초에 따라서 다문화상담이 내포하고 있는 가설 및 방향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19)</sup>

① 다문화상담은 상담 및 심리치료의 변형이론으로서 모든 상담과 심리치료는 문화중심적이고 그 가치관과 세계관은 문화적 맥락에 따른 철학적 기초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② 기존의 상담 및 심리치료의 각 이론은 특정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 발달되었다. 따라서 각 이론은 특정한 문화적 적합한 반면에 다른 문화적 상황에 대해 편견을 갖는 경향이 있다.

③ 문화적으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상담자는 내담자의 관심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

④ 한 사람의 정체성은 상황에 의해 형성되며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다.

⑤ 모든 개인은 개인과 집단, 그리고 보편적 수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 정체성은 유동적이다.

⑥ 상담자는 그들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상담현장에 가져오게 된다. 즉 상담자의 문화적 집단과 연관된 세계관은 그들이 행하는 상담형태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

⑦ 문화적 정체성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다.

⑧ 문화적으로 학습된 가설들은 학습된 관점으로서 각 개인의 정체성이나 자기개념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⑨ 개인의 문제는 종종 문화적 상황 속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문제는 가족, 집단, 또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질 수도 있다.

⑩ 상담자는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다문화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⑪ 상담의 다문화적 관점은 단지 소수 인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담 장면에서 평가와 진단을 정확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사회구조 자체가 다민족으로 구성된 미국과 수천 년의 단일민족의 뿌리를 갖고 있는 한국의 사회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에서 문화차이가 단지 언어와 풍습에 따른 인종이나 민족적 차이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 내에 다양한 그룹의 문화적 차이와 개인적 특성이 나타나기에 문화적 차이에 따른 다문화상담적 접근의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상담과 문화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상담 및 심리치료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기법의 대부분이 서구적 가치관에서 형성되었기에 우리나라문화에 맞는 상담의 토착화를 위한 검증적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 상황의 다문화상담자가 한국인 내담자와 효율적인 상담관계를 맺고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지침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sup>20)</sup>

①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화내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상담자는 동질 집단에 속하는 한국인 내담자라 할지라도 상이한 문화내적 배경과 가치관 그리고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인간행동의 기본가정을 이해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세계관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② 상담자는 문화적으로 효율적이고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강점과 한계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상담자는 내담자의 세계관과 문화적 가치관의 지향성에 동화하기 위해 내담자가 선호하는 상담방법과 기대치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상담자의 환경이나 상황 요인을 염두에 두고 적합한 상담기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한국문화적 상황에 있어서 내담자는 상담자를 권위 있는 인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상담자는 때때로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지시적이고 적극적이며 구조화된 논의가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각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한국문화적 상황에서 내담자는 때때로 공감적이며 수동적이고 비지시적인 상담 접근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교육적 회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내담자와의 편안한 상담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한국문화적 상황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즉각적인 정서적, 환경적 응급조치를 취하는 위기개입 형식의 상담방법을 활용하거나 단회상담 모형이나 단기 문제해결 중심 상담방법의 활용이 요구된다.



### 3. 유교적 성향에 따른 다문화기독교상담

#### 1) 다문화상담의 유교적 적용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문화에 있어서 유교의 영향은 강력한 집합주의적 특성과 개인으로 하여금 권력의 불평등과 권위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개인에게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을 상담이론의 기반이 되고 있는 서구적 특성과 한국적 특성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서구적 특성

- ① 정체감은 각자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다.
- ② 개인적 이익이 공동체의 이익보다 우선된다.
- ③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 ④ 개인은 대체로 “나”라는 용어 안에서 생각한다.
- ⑤ 교육의 목적은 “How to learn”을 배우는 것이다.
- ⑥ 프라이버시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 ⑦ 업무가 인간관계보다 우위에 위치한다.
- ⑧ 어떤 주제에 대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음을 인식한다.
- ⑨ 추상적 용어를 사용한 토론을 잘한다.
- ⑩ 자아실현이 궁극적 목적이 된다.

##### (2) 한국적 특성

- ① 개인이 속한 공동체를 통해 개인의 정체감이 반영된다.
- ② 공동체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된다.
- ③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성숙한 미덕이다.
- ④ 개인은 대체로 “우리”라는 용어 안에서 생각한다.
- ⑤ 교육의 목적은 개인적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다.
- ⑥ 체면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 ⑦ 인간관계가 업무보다 우위에 위치한다.
- ⑧ 공동체에서 개인의 의견은 억제되어야 한다.
- ⑨ 불평등이 용인되고 예상되어진다.

- ⑩ 권위에 큰 가치를 부여하며 권위 있는 사람에게 의존한다.
- ⑪ 부모나 교사 등 권위있는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
- ⑫ 순종을 미덕으로 가르친다.
- ⑬ 기준이 힘있는 자에게 있고 권력은 선으로 인식된다.

이상의 특징에서 살펴보듯이 유교문화적 가치관이 뿌리깊이 내려있는 한국상황에서 다문화 상담에 의한 이론의 실천과 적용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담을 지시적이고 가부장적이며 권위적인 과정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들은 공감과 정보와 조언, 그리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구조적이고 가시적인 상담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sup>21)</sup> 따라서 우리나라 내담자들은 상대적으로 서구의 내담자들에 비하여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담이론의 적용에 있어서 서구 내담자들에 비해 더욱 양육적이고 구체적인 상담기법의 사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sup>22)</sup>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다문화적 상담과정에서의 바람직한 상담자는 자신의 역할과 문화적 가치관에 적합한 상담적 적용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다문화상담자는 내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상담기법을 활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자신이 서구적 개인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인지 아니면 한국적 집단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자각하는 일이 중요하다. 서구적 개인주의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상담자의 역할과 한국적 집단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3)</sup>

①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의 역할

- 내담자의 내적인 감정, 욕구, 증세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관심을 내부로 향하도록 돕는다.
- 내담자의 욕구를 내집단의 욕구와 분리시켜서 내담자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다.
- 내담자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도록 돕는다.
- 의사결정시 내담자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돕는다.
- 내담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내담자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자신의 욕구에 부합된 삶을 선택하도록 돕는다.

② 집단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의 역할

-내담자의 외적인 환경, 사회적인 관계, 내집단에서의 역할, 환경조건 등을 살펴보도록 하여 내담자의 관심을 외부로 향하도록 돕는다.

-내담자 자신의 욕구보다 내집단의 욕구를 우선하여 내담자가 내집단의 욕구를 파악하도록 돕는다.

-내담자가 내집단원들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도록 한다.

-의사결정시 내집단들에게 미칠 영향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돕는다.

-내담자가 집단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내담자 스스로가 타인 특히 내집단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항상 먼저 생각해 보도록하여 내 집단원들과 더 밀접해지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둘째로, 상담자는 어느 한 가지 이론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듯이 상담자가 상담과정에서 한 이론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자각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즉 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개인주의적인 또는 집단주의적인 가치를 고루 반영해주는 이상적인 또는 절충적인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가치를 절충적으로 반영하는 이상적인 상담자의 역할을 제시해보면 무엇보다도 내담자의 관심을 내부와 외부 모두에 돌려서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파악하면서 자신의 내적 욕구에도 귀를 기울이도록 돕는다. 또한 내담자 자신의 욕구와 내집단의 욕구를 다 살펴보도록 도우며 내담자 자신과 내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절충하도록 돕는다. 의사결정시에는 내담자 자신과 집단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다 고려해 보도록하며 내담자 자신의 감정에 대한 자각과 동시에 집단원들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을 높인다. 더 나아가 내담자는 집단과의 갈등 시에는 언제라도 상충되는 욕구를 절충하여 내담자 자신과 집단의 욕구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절충하고 타협하는 기법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는 상담장면에서 문화적 차이에 따른 내담자의 태도적 특성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 속에 있는 내담자와 한국적 집합주의적 가치 속에 있는 내담자는 상담에 있어서 친밀감이나 신뢰, 흥미 등의 반응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 속에 있는 내담자는 상담장면에서 친근감을 느낄 경우 대개 적극적인 표현과 자신을 드러내는 태도를 나타내지만 친근함을 느끼지 못할 경우 상담자에 대해 비평적이고 공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신뢰로움을 느끼는 경우 적극적이며 경쟁적을 토론하면서도 면담을 조절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수동적이며 방어적이고 모호한 반응을 나타낸다. 상담에 흥미를 느낄 경우 가까운 신체적 거리와 접촉, 많은 질문, 큰 소리 등의 태도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고 질문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한국적 집합주의적 가치 속에 있는 내담자는 상담장면에서 친근감을 느낄 경우 대개 부드럽게 말하고 공손하며 적극적으로 경청하지만 친근함을 느끼지 못할 경우 비록 조용하고 공손하지만 듣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신뢰로움을 느끼는 경우 도움과 지도를 요청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도움이나 지도를 요청하지 않는다. 상담에 흥미를 느낄 경우 수동적이면서 직시하지 않는 특성을 드러내는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표현이나 동작 없으면서 직시하는 경향이 있다.

## 2) 유교적 다문화기독교상담을 위한 구체적 전략

다문화상담이 오늘날의 기독교상담자에게 주는 유익한 점을 간추려보면 첫째로, 상담장면에 있어서 다문화적 관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는 상담자로 하여금 상담관계에서 자신의 특성에 대한 안목과 내담자를 이해하는 시각을 넓히는 일, 그리고 내담자의 문화에 적합한 반응형태를 확장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기존 상담이론의 통합적 적용에 대한 인식의 확장에 도움을 제공한다. 효과적인 다문화 개입전략들은 전문적인 도움으로서 내담자의 문화

적 가치관과 인생경험의 바탕 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입기술을 활용하도록 한다. 아무리 뛰어난 상담자라 할지라도 단 하나의 이론이나 접근을 모든 상황이나 문제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집단에 성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화적 특성과 사회정치적인 요인에 따라 상담유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sup>24)</sup>

셋째로는, 우리의 전통문화적인 특성에 적합한 토착화 상담이론과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전통적인 상담이론과 방법들은 대부분 서구문화의 인간이해와 가치관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서구적 전통의 상담이론은 객관성과 인과적이며 양적 연구에 대한 선호로 인해 주관적이며 심리영적(pscho-spiritual)인 토착적 치유형태를 배제하고 하였다. 하지만 다문화상담의 접근에서 상담자는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를 상담장면에 기꺼이 도입한다. 즉 종교적이고 영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안목으로 확장하며 토착적인 치유형태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한국적 다문화기독교상담을 위한 기반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문화 특히 정신적 유산과 이의 영향에 따른 한국인의 문화심리적 특성에 대한 통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은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인의 심성은 무엇보다도 집합주의적 특성과 관계적 맥락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유교적 다문화기독교상담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위해서는 집합주의와 관계적 특성을 중시하는 상담방법을 적용해할 수 있어야 한다

#### (1) '관계 속의 자기 (self in relation)' 를 지향하는 기독교상담

한국인의 문화심리적 특징 가운데 집합주의적 특성으로 말미암은 '관계 속의 자기 (self in relation)' 는 한국문화의 상황에서 기독교상담자가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안목이다. 전통적으로 한국문화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무당의 치유방법을 살펴보면 질병이나 우환을 겪는 사람들의 문제를 그 문제 하나로만 보지 않고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고려하여 총체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시도를 볼 수 있다. 이는 기독교상담에 있어서 한국적 심성에 뿌리

박혀 있는 관계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성장과정의 상황적이며 관계적 맥락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작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인의 고유정서라고 할 수 있는 ‘한’을 풀어내는 방법에서 ‘넋두리와 같은 삶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내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다.<sup>25)</sup> 이를 통해 관계의 훼손을 우려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고 내면에 응어리진 감정의 덩어리를 녹여 낼 수 있으며 고난과 삶을 ‘재구성(reframing)’ 할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관계 혹은 상황 속에서 변경할 수 없는 문제 자체에 상담의 초점을 두기 보다는 문제를 품고 있는 상황이나 구조적 틀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 주는 ‘second order change’의 기법을 활용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더 나아가 운명적인 속박처럼 보이는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 풀어낸 삶의 이야기를 무속적 해원이나 미학적 승화가 아닌 요셉이나 야곱, 다윗 등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는 연장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독교상담적인 기법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 (2) 집단적 자기표현의 기독교상담

집합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인은 개인적인 자기표현방식보다 집단적인 자기표현방식을 선호한다. 곳이나 탈춤을 집단적 자기표현방식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국문화의 유교적 상하관계가 솔직한 자기표현 보다는 사회적으로 조정된 상황적 표현 즉 눈치껏 살피는 표현방식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은 오늘날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사회의 역할을 수행할 때와 노래방이나 짬뽕방 등의 오락형태에서 보여주는 행동이나 친밀감의 차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분명 한국적 기독교상담에서 집단적 역동성을 활용하는 것은 상담의 유효성을 높여 줄 수 있는 문화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III. 닫는 글

오늘날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주제는 상

담이론과 기법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서구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적 환경은 서구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상담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장과 정착을 하는 가운데 한국의 문화적 상황을 포함하는 상담환경이나 상담과정에 대한 다문화상담적 관점은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결방법에 대한 단서들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교적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상존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현재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유교적 세계관이라 할 수가 있다. 유교가 종교나 아니나의 여부를 떠나 유교사상 자체는 한국의 문화 형성에 지대한 역사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교는 한국인들의 이념, 가치, 정서, 심리, 사상 등의 근본적 뿌리가 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 이후 서구적 영향으로 인하여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민족의 내면에 뿌리깊이 스며있는 의식구조 및 가치관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유교적 문화는 여전히 한국인들의 의식구조를 비롯하여 인간관계나 삶의 형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독교상담자라 할지라도 서구의 의식구조와는 다른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내담자를 위해서 상담자는 무엇보다도 유교적 문화가 가지고 있는 사회환경의 틀 안에서 내담자의 생활 형태와 인간관계들을 이해할 때 비로소 내담자의 모습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유교적 세계관과는 확연히 다르지만 기독교 신앙을 담고 있는 종교적 양식에 있어서는 한국기독교 역시 유교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의 위계질서나 목사가 나이가 많은 적든 마치 교인들의 아버지와 같은 가부장적 이미지 등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생활양식의 내면엔 유교적 가치관이 자리 잡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개인의 성별, 연령, 종교, 성적 지향성, 사회경제적 지위와 더불어 한국인의 유교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수직적 인간관계 중시현상, 가족 및 집단지향성,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확신 등을 고려하며 상담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요구된다.<sup>26)</sup>

이와 같은 한국의 유교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담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내담자는 상담자를 전문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높은 존재로 인식함 ② 내담자는 위계질서를 중시하며 이에 따라 상담자에게 의존하려는 경향 ③ 내담자는 상담자의 교육이나 조언에 따라 문제가 즉각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함 ④ 내담자는 원인규명을 통한 직접적인 해결방안 모색보다는 인간적 부딪침없이 참으면서 문제를 극복하려는 경향성 ⑤ 내담자 자신의 독립적 해결모색 보다는 중재자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함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담자의 문화적 성향들을 상담자가 고려할 때 상담자가 내담자의 태도와 생활양식을 적극 상담에 활용할 때 훨씬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기독교상담에 있어서 한국의 유교문화적 특성과 심성에 적합한 토착화된 상담의 형태를 정립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관계 속의 자기 (self in relation)’를 지향하는 기독교상담, 집단적 자기표현의 기독교상담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물론 다문화기독교상담에서 토착적인 상담접근법을 서구의 전통적인 상담접근법과 통합하는 작업은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위험성도 있으나 토착적인 상담접근법에 대한 고찰은 한국인 내담자에게 지극히 인간적인 눈높이로 다가가는 접근법으로서 현 시대에 다문화적기독교상담을 위해 활용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상담자는 기독교신앙의 영성을 바탕으로 내담자를 위한 유교적 가치관을 포함한 다문화적 이해와 학문적인 깊이, 그리고 현실을 넓게 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면을 겸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상담자는 자신의 문화적 위치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인간의 정신적 문제를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이라는 보다 깊은 차원에서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수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강진령 “한국문화에서 상담활용의 비교문화적 관점.” 한국상담학회. 현실역동상담학술세미나자료. (2003).
- 금장태.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금장태. 「유교의 사상과 의례」. 서울: 예문서원. 2000.
- 김태길. 「유교적 전통과 현대한국」. 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1.
- 김중빈 · 이명자. 「한국인답게 사는 길」. 서울: 우석. 1992.
- 박양운. 「세계5대종교 개관」. 서울: 가톨릭신문사. 2002.
- 박외숙. “다문화적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에 대한 검토.” 한국심리학회. 동계연구세미나 자료. (1996).
- 최상진.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2.
- 최인재 · 최상진. “한국인의 문화심리적 특성이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 우리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2002. 1): 55-71.
- 최준식.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서울: 사계절 출판사. 1998.
- 김중빈 · 이명자. 「한국인답게 사는 길」. 서울: 우석. 1992.
- 최준식. 「한국인에게 문화가 있는가」. 서울: 사계절 출판사. 2000
- 원준재. “한국문화에 어울리는 상담을 생각하며.” 한국상담학회 현실역동상담학술세미나 자료. (2003)
- Lingenfelter, S. G. & Mayers, M. K. *Ministering Cross-Culturally*, 「문화적 갈등과 사역」. 왕태종 역. 서울: 조이선교회. 1989.
- McGoldrick, M., Giordana, J. & Pearce, J. K.. *Ethnicity & Family 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1996.
- Nicol, M. P.. *No Place to Hide*. Amherst: Promentheus Books. 1995
- Patton, J. *Pastoral Care in Context*, 장성식 역. 「목회적 돌봄과 상황」. 서울: 은성출판사. 2000.
- Sue, D. W. 외 9인 .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London : SAGE Publications. 1998.
- Sue, D. W. Ivey, A. E. & Pedersen, P. B. *A Theory of Multicultural Counseling & Therapy*.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96.

[ 후주 ]

- 1) 박양운, 「세계 5대 종교 개관」 (서울: 가톨릭신문사, 2002), 445.
- 2) 금장태, 「유교의 사상과 의례」 (서울: 예문서원, 2000), 126.
- 3) 최준식,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서울: 세계절출판사, 1998), 133.
- 4) 최준식, 139.
- 5) 최준식, 「한국인에게 문화가 없다고」 (서울: 세계절출판사, 2000), 33.
- 6) 금장태, 「유교사상과 유교문화」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4), 148-50.
- 7) 김태길, 「유교적 전통과 한국문화」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1), 77.
- 8) M. McGoldrick, J. Giordana, & J. K. Pearce, *Ethnicity & Family 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1996), 98.
- 9) M. P. Nicol, *No Place to Hide* (Amherst: Promentheus Books, 1995), 29-30.
- 10) 김병오, 「부끄러움과 폭력」 (서울: 한들출판사, 2001), 24.
- 11) 김종빈 · 이명자 공저, 「한국인답게 사는 길」 (서울: 우석, 1992), 92.
- 12) 최준식, 「한국인에게 문화가 있는가」 (서울: 세계절, 2000), 98.
- 13) 최인재, 최상진, “한국인의 문화심리적 특성이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 우리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2002, 1), 55-71.
- 14) 최상진,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2), 139.
- 15) S. G. Lingenfelter & M. K. Mayers, *Ministering Cross-Culturally*, 문화적 갈등과사역, 왕태종 역 (서울: 조이선교회, 1989), 5.
- 16) Patton, J. *Pastoral Care in Context*, 장성식 역 「목회적 돌봄과 상황」 (서울: 은성출판사, 2000), 66-8.
- 17) D. W. Sue, 외 9인,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London: SAGE Publications, 1998), 2.
- 18) 강진령, 한국문화에서 상담활동의 비교문화적 관점, (한국상담학회현실역동학술세미나 자료, 2003), 9.
- 19) D. W. Sue, A. E. Ivey, P. B. Pedersen, *A Theory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Therapy* (London: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96). 13-30.
- 20) 강진령, 21-4.
- 21) 강진령, 15.
- 22) 박외숙, 137.
- 23) 박외숙, 157-60.
- 24) D. W. Sue, A. E. Ivey, & P. B. Pedersen, *A Theory of Multicultural Counseling & Therapy* (CA: Publishing Company, 1996), 46.
- 25) 최상진,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2), 67.
- 26) 원준재, “한국문화에 어울리는 상담을 생각하며,” 한국상담학회, 「현실역동상담학술세미나 자료」(2003): 99.

【 Abstract 】

Korean Confucianism and Cultural Approach of  
Christian Counseling

Jae-Hee Han  
(Ph.D., Cheonan University)

Counseling is a process of encounter between a counselor and a client. There ar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a counselor and a client. Current theori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face to cultural issue. Theori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represent a variety of worldviews, each with its own values, biases, and assumptions about human behavior. Also, there is an increased need for indigenous models of helping used by healers and traditional figures in non-Western societies.

In this research, multicultural counseling is introduced for the Application of Korean Christian counseling. Especially, researcher revealed traditional Korean cultural related to Confucianism that has been giving a great influence in Korean culture. Conclusionally, Christian counseling technics was applied for the Korean culture related to Confucianism.

**Kye words:** Multicultural counseling, Confucianism, Christian counseling, Korean culture